

주간기도정보

2024. 3. 2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고난 묵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살롬나비, ‘2024년 고난주간 묵상 기도’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2024년 고난주간 묵상 기도’를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살롬나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가상철언)을 한 구절씩 인용하며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히 13:13)라고 기도했다.

살롬나비는 “우리들 모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지만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를 부록으로 첨가한다”며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과학, 경험, 다수의 의사결정, 유행, 시대정신 등도 일상에서 상당히 요긴한 지침서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추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세상과 차이가 없는 정체성으로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손가락질당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국가와 민족의 소망이 되고 구원을 선물하는 희망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눈물이 말라버린 한국교회에 주님의 병에 담을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이 특권주의에서 벗어나고, 성도들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라며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현장예배 배제로 식어진 영적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력한 영성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최근 의료사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며 “국가 의료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의사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묵살하지 않고 합리적 요구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아울러 “위정자들이 권력 욕심과 독단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기도드린다”며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는 사리사욕, 당리당략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청렴한 대표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북한 2,500만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관심 죄, 긍휼을 상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며 “평양을 방문하여 연설하고 백두산에 갔으면서도 억류 중인 세 분의 대한민국 국민을 데려오지 않은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했다.

이 밖에 “강대국 러시아가 영토 확장을 꺾고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음악축제를 벌이고 있는 곳을 불시에 게릴라 식 테러 공격을 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납치하고 죽인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패권주의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언제 일으킬지 모를 전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대만 국민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5-8)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로마서 8:3-4)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룩함과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따라 행하여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예수 생명의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의료사태와 곧 다가올 총선으로 요동하는 한국 사회와 북한 동포,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나라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리라”

북한 ‘통일 지우기’ 조용히 진행…이념 혼란 우려한 듯

북한 주민들 의문과 비판 여론 커지자 당국 진압 나서



북한이 작년 말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 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이나 동족과 관련한 표현이 삭제되고 있지만 주민 혼란을 고려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통일 지우기’ 동향에 관해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주민의 대남 동경과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남한과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이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평양 지하철 ‘통일역’ 명칭에서 ‘통일’ 삭제 등 통일·화해·동족 개념을 철저히 지우고 있다. 그러나 ‘2국 가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나 주민 선전, 궤기대회 같은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산을 일시에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볼 때 급격하게 선대의 업적을 삭제하는 통일 지우기는 이념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통일 지우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통일 개념 삭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주민 입단속에 나섰다.

북한은 특히 기관·단체 간부들에게 강연회 등 계기에 일반 노동자나 주민들에게 당 정책에 대한 비판 소지가 있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에 토를 달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하라고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 지우기에 관한 의문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이 진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 간부도 통일 지우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최근 평안북도 평성시에서는 통일 개념 삭제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보위부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남조선’이 아닌 ‘괴뢰한국’으로 부르라는 내용이 담긴 정치강연자료를 근로 단체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연자료에는 “남조선, 한국 등으로 부르고 있는 입말을 벗어나고 일반적인 대화와 교양 및 강연에서도 괴뢰한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출처: 연합뉴스, 데일리NK 종합).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23-2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신명기 28:2)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한 호칭을 괴뢰한국으로 바꾸고 통일 지우기 시행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과 기대감을 차단하며 경계하는 이 땅의 어리석음을 교훈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평판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탐심을 놓칠 수 없는 김정은 정권과 한민족이지만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남·북을 분리하는 사탄의 간계를 소멸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의 억압적인 명령과 감시로 인해 영혼이 진정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린 북한 국민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자유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를 위해 고난받는 북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땅을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를 섬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음세대 인식조사 ‘동성애 인정’, ‘비혼동거 찬성’ 충격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대적 흐름 반영된 결과...교회가 나서 성경적 가치 심어줘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지난 5일 발표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52%가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정하기 어렵다’ 26%, ‘잘모르겠다’ 22%로 절반이 넘는 수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개신교 청소년은 ‘동성애 허용’에 반대(45%)가 찬성(34%)보다 높았고, 비개신교 청소년은 찬성(55%)이 반대(23%)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74%)의 동성애 찬성비율이 남학생(31%)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청소년의 무종교인 비율도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성인(16.6%) 보다 낮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40%,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8%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신교 청소년의 종교 필요성 인식도 48%로 4년 전 조사 결과(60%) 대비 12%나 하락했다.

목데연 지용근 소장은 “이번 조사의 가장 심각한 점은 종교가 청소년의 필요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이라며 “심지어 개신교인 학생들조차 종교가 필요하던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를 더욱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거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청년 3명 중 2명이 ‘비혼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이 발표한 ‘비혼동거 실태와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대학생 중 64%가 비혼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반 대학생(79%)에 비해서는 찬성 비중이 적었으나 절반 이상에 달했다. 국민 전체의 비혼동거 동의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별 동의율에서는 20대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13-19세가 79%, 30대가 78%로 뒤를 이었다. 현재 비혼동거자들에게 비혼동거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목데연은 이를 두고 "이성 간의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양 목데연 부대표는 "비혼동거는 더 이상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교회가 먼저 나서서 성경적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닌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결혼관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출처: 아이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종합).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베드로전서 1:14-15)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1서 4:9-10)

하나님,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진리에서 멀리 떠난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비혼동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욕을 부추겨 죄에 종노릇 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간계를 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독교 학생들이 조차 종교를 필요치 않게 여기는 무감각한 세대의 실상을 교회가 직면하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자녀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나타난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세대가 부르신 이를 본받아 자신을 내어 주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